

합금철부터 고분자화학까지 고객만족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다

대한민국 합금철 산업을 선도해 온 SIMPAC메탈로이.
지난 60여년 동안 고객 여러분이 보내준 변함없는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종합 합금철 메이커, SIMPAC메탈로이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합금철을 개발·생산하며 대한민국 합금철 산업을 선도해 온 SIMPAC메탈로이.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명실공히 종합 합금철 메이커로서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철강분야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SIMPAC메탈로이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명성을 꾸준히 이어 온 것입니다.

ROLL 가공 및 피복으로 고분자화학 사업을 이끈다

SIMPAC메탈로이는 대한민국 1등 ROLL 가공 및 피복 전문업체로 합금철 뿐만 아니라 고분자화학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철·제지 공정의 필수요소인 압연, 이송, 도색, 물기제거 등 다양한 방면에 이용되는 롤의 정밀한 가공과 사용 용도에 적합한 피복 작업으로 고객사에 고품질의 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우레탄 가공기술과 접목하여 새롭게 개발한 벨트클리너로 작업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SIMPAC메탈로이 (홈페이지) www.simpacmetalloy.co.kr • 1공장 (합금철)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153 (괴동동) (전화) 054-271-8700
• 2공장 (ROLL 가공 및 피복) 경북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22 (호동) (전화) 054-278-3991 • 광양공장 (ROLL 가공 및 피복) 전남 광양시 태인6길 46 (태인동) (전화) 061-792-2584
주식회사 SIMPAC메탈 (홈페이지) www.simpacmetal.co.kr • (합금철) 충남 당진시 정미로 438 (전화) 041-360-0100

SIMPAC STORY 2016 SPRING VOL.34

SIMPAC STORY

2016
SPRING
VOL.34



SPECIAL THEME

- 04 SIMPAC 테마A컷
단단한 협력으로 내일을 만들다
- 06 SIMPAC News
SIMPAC 소식
- 08 SIMPAC 메시지
SIMPAC, 협력의 역사
- 10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산기 생산팀
- 16 기획칼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ENJOY SIMPAC

- 20 SIMPAC Highlight
2016년 신규입사자 역량강화과정
- 26 SIMPAC 데이터
함께하면 좋은 사람, 친구
- 28 SIMPAC인의 봄나들이
SIMPAC HDS ENG사업부문 구미영 사원
- 34 차 한잔 나누며 Talk Talk
열혈 스포츠 마니아 3인 3색
- 38 개인폴더
영화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트>
- 40 편지 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편지
- 42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 43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단단한 협력으로
내일을 만들다



04
SIMPAC 테마A컷



20
SIMPAC Highlight



28
SIMPAC인의 봄나들이

SIMPAC STORY
2016년 SPRING
통권 34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6년 5월 16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R큐더스
02-6011-2000
편집 및 디자인 ㈜R큐더스
02-6011-2000
인쇄 삼진커뮤니케이션즈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이웅기 사원
02-3780-4923
wklee@simpac.co.kr
손인성 사원
032-590-2023
isson@simpac.co.kr

㈜SIMPAC
김선일 사원
032-510-0024
silkim@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만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SIMPAC산기
김현수 과장
062-717-7214
kimhs@simpac.co.kr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메탈
이준기 대리
041-360-0122
jklee@simpac.co.kr

SIMPAC 테마A컷

단단한 협력으로
내일을 만든다

단단한 협력으로 내일을 만든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십시일반'

협력을 강조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몸소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면
앞에 놓인 장애물 같은 어려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
어려운 수학문제 같은 곤란함이
늘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대방에 한 발 양보할 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남과 함께하는 순간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동료와 함께 이루는 지금의 협력은
새로운 내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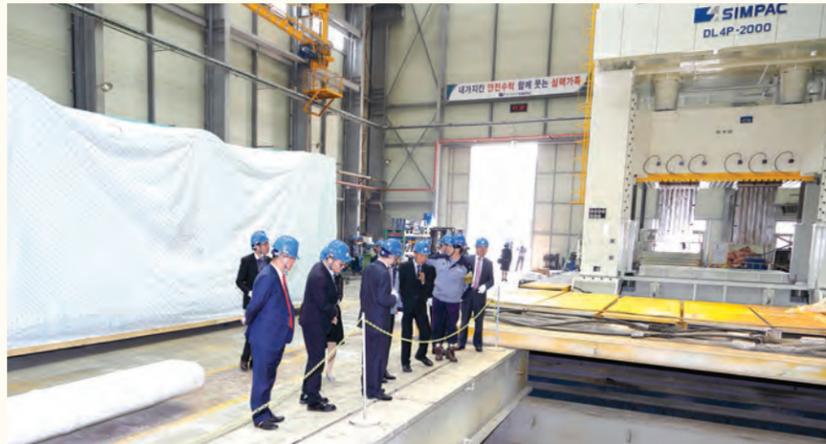
2016
SPRING
SIMPAC
STORY

SIMPAC NEWS

SIMPAC

중국 회안시 헤건림 시장 일행, (주)SIMPAC 본사 방문해

지난 5월 9일, (주)SIMPAC에서는 중국 회안시 시장과 그 일행이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을 포함한 SIMPAC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국 회안시 내 SIMPAC산기의 제품 수출 건과 더불어 향후 SIMPAC과 회안시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방문 일정은 중국 회안시와 SIMPAC에 대한 소개, 회안시와 SIMPAC의 경제 협력과 관련한 대담, (주)SIMPAC 공장 탐방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안시 헤건림 시장은 "SIMPAC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은 중국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만큼 기대가 크다." 며 향후 회안시 내 SIMPAC 중국공장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SIMPAC 그룹

(주)SIMPAC과 SIMPAC메탈로이, 3월 주주총회 개최

3월 18일과 25일, 양일간 SIMPAC메탈로이와 (주)SIMPAC의 각 본사 회의장에서 제 53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SIMPAC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올해 SIMPAC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과 배당 및 정관 일부 변경 등을 결의 하였다. 최진식 회장은 지난해 철강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성과가 유례없이 악화되었지만,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경쟁사들보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으며 올해는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마무리를 하였다.

SIMPAC 메탈로이

직원가족 통일기원 제16회 포항해변마라톤 대회참가



지난 4월 24일 SIMPAC메탈로이 직원과 그 가족들은 포항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에 참여했다. 2만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SIMPAC메탈로이 직원과 그 가족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며 10km 마라톤에 참가하였다. 형산강 강변을 따라 송도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그 풍경이 아름다워 10km 참가자가 유독 많았다. 우리 직원 및 가족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린 아이까지 10km 완주를 하였다. 바쁜 회사일 때문에 자주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은 모처럼 손을 잡고 함께 뛰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통일 대한민국의 원대한 슬로건도 좋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싱그런 햇살을 맞으며 함께한 하루가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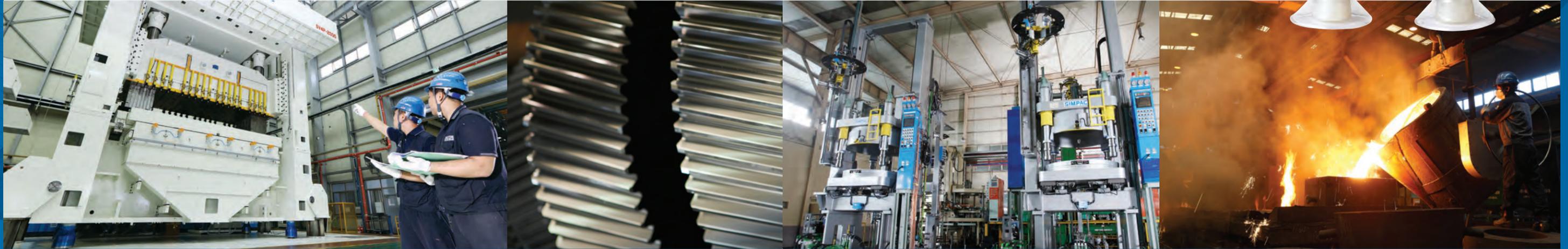


임직원 화합을 위한 직급별 간담회 개최

4월 5일부터 15일 동안 (주)SIMPAC에서는 본사 인원들을 대상으로 직급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발전된 사내문화 형성과 더불어 15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평일 저녁시간을 이용해 진행되었으며 행사 소개와 저녁식사, 그리고 조직문화 및 15주년 행사에 대한 자유 토론 순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팀별 혹은 전 직원들이 아닌 직급별 인원들이 모여 진행됨으로써 보다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었다. 임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기업문화 형성과 15주년 행사 준비를 목적으로 진행된 직급별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SIMPAC, 협력의 역사

대한민국 No.1 프레스 브랜드의 (주)SIMPAC에서 합금철과 산업기계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자리하기까지 SIMPAC그룹은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봄호에서는 SIMPAC 15주년 특집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도전정신을 근간으로 한 SIMPAC의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SIMPAC그룹,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까지 기계의 모든 것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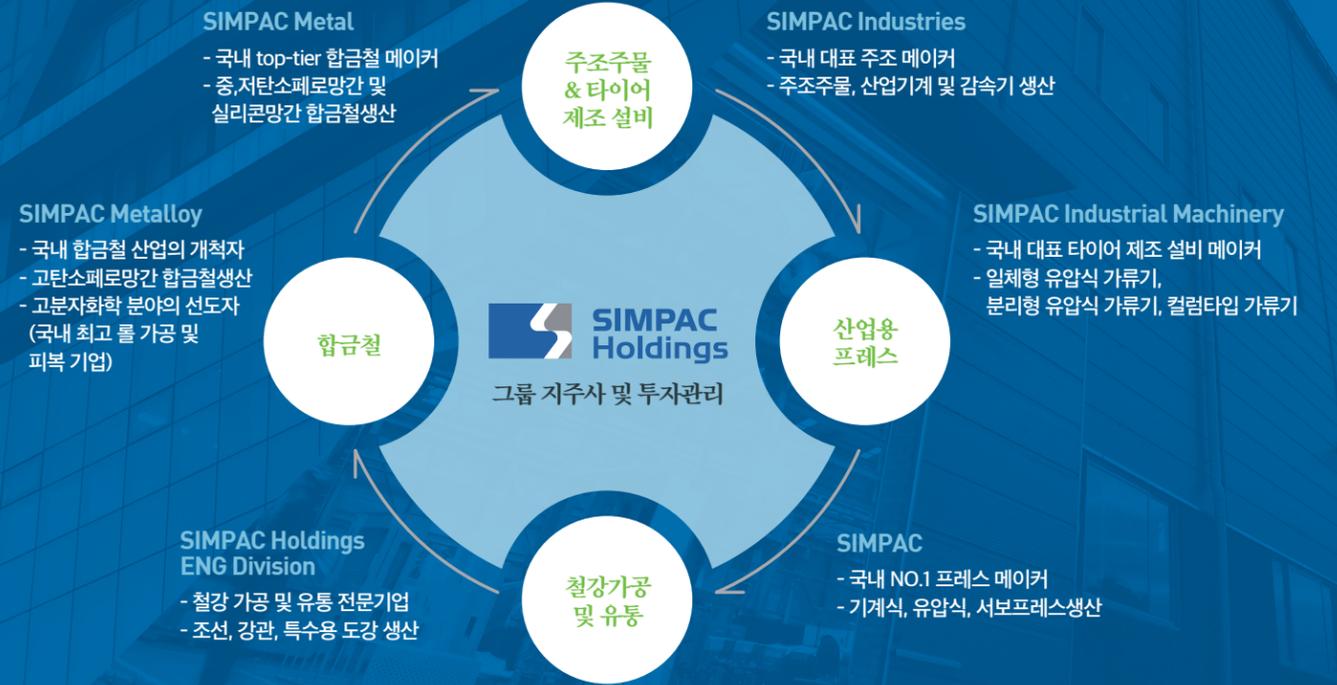
SIMPAC그룹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 아래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SIMPAC 홀딩스는 2001년 10월, 업계에서의 인지도는 높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던 쌍용정공을 그룹에 편입, (주)SIMPAC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SIMPAC은 매년 흑자성장을 거듭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프레스 전문 제작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3년 철강유통 업체 (주)SIMPAC이엔지, 2006년 합금철 생산업체 (주)SIMPAC메탈로이, 2008년 (주)SIMPAC메탈까지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을 그룹으로 합류시키며 프레스에서 합금철까지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주조와 타이어 제조설비 시장을 선도하는 (주)SIMPAC인더스트리와 (주)SIMPAC산기를 SIMPAC그룹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전방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SIMPAC은 계열사 간 끊임없는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최상의 파트너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SIMPAC 15년 역사, 계열사 간의 끊임없는 시너지 창출

- 2001년 (주)SIMPAC홀딩스 설립
- 2001년 (주)SIMPAC 합류
- 2003년 (주)SIMPAC이엔지 계열사 편입
- 2006년 (주)SIMPAC메탈로이 (舊 SIMPAC ANC) 합류
- 2008년 (주)SIMPAC메탈 편입
(주)SIMPAC메탈로이 자회사
- 2010년 본사 사무실 이전 (SIMPAC빌딩)
- 2014년 (주)SIMPAC인더스트리 합류
- 2015년 (주)SIMPAC산기 합류





숙련된 기술력으로
끈끈한 동료애로
타이어 제조설비의 최강자를
꿈꾸는 사람들

SIMPAC산기 생산팀
이장연 주임, 이상문 기장, 김원진 차장, 강성복 차장

회사가 가시밭길을 걷던 때에도 우직스레 한 자리를 지키며 기술을 연마해왔다.
그 기술력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든든한 백이 돼주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한걸음씩 전진 중인 단합 최강팀,
SIMPAC산기 생산팀의 이야기다.



‘SIMPAC산기 생산팀은 사람이 곧 기술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생산팀은 어떤 팀이냐는 물음에 김병로 부장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답변 가득 묻어났다.
무엇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일까.

이상문 기장 | 생산팀에는 현장직 9명과 사무직 3명, 총 12명의 팀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족보다 더 오래 마주하다 보니 다들 형제 같은 사이가 됐죠. 게다가 타이어 제조설비라는 섬세한 중량제품을 생산하려면 팀원 간의 협이 필수적인데요, 내 형제처럼 끈끈한 이들이 단합까지 잘 되니, 어떤 팀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강성복 차장 | 특히 생산팀에는 한 길만 걸어온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이상문 기장님만 해도 31년, 이장연 주임님은 27년, 김원진 차장님도 25년을 한 분야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서로 눈만 봐도 통하기 때문에 ‘인간 자동화’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업무처리 속도가 뛰어난데요, 제가 이런 어려운 선배님들 밑에서 애교도 피우고 새로운 지식도 쌓으면서, 3년째 후배의 삶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차장 | 요런 살가운 후배들 덕분에 모두 가깝게 지내다 보니, 그 집에 어떤 경사가 있는지 걱정거리는 원지 정도는 꿰고 있어요. 야간작업 할 때는 일부러 집에서 음식을 챙겨 와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과부 사정은 흠아비가 안다고, 다들 동료 챙기는 데는 안 빠지죠.

이장연 주임 | 점심시간에 회사 당구장에서 잠깐씩 몸도 풀고, 휴일에 모여서 족구시합도 하고, 낚시도 가는 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별거나 싫어도 운동과 취미생활을 함께하니까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종종 월척을 낚아서 스트레스도 풀고, 아마 고래도 잡았을 걸요?!

딱히 요청하지 않아도 바쁜 동료를 볼 때면 본능적으로 옷을 건고 나선다는 생산팀.
단합을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해온 덕분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해냈다.
SIMPAC산기의 이름을 아시아 시장에도 각인시켰다.

강성복 차장 | 이전까지는 한 달간 40여 명의 기술자가 24대 정도의 완제품을 생산했다면요, 근래 그 절반 이하의 인력으로 40대를 납품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겨울이라는 악조건에 폭설까지 가세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해냈지 말입니다.

김원진 차장 | 단순히 완제품 몇 대를 더 만들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폭설에 출근을 못할까 봐 회사에서 잠을 자면 서까지 맑은 일을 끝내겠다는 저희의 의지가 참 좋았습니다. 생산팀의 역량이 신기록을 세울 만큼 커졌다는 자랑스러움과, 그로 인해 회사가 더 탄탄해졌다는 뿌듯함에 만감이 교차했죠.

“
SIMPAC산기 생산팀은
사람이 곧 기술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





“
이곳 팀원들의 365일 바람은
국내든 국외든 모든 동료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다.
”



이상문 기장 | 그래서 국외에서도 SIMPAC산기의 저력은 단연 'GOOD'입니다. 동종업계의 주요 외국 업체에도 절대 밀리지 않고, 더 앞선 부분도 있으니까요. 현재 저희는 태국 삼기린타이어와 중국 풍원타이어에 납품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진행 중이고요. 대만 패더럴타이어와는 추가제작 계획까지 오가는 상황인데요. 최상의 제품을 기한 내 완벽히 납품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까지 시운전을 완료해내는 기술력 덕분에 얻은 성과라고 봅니다.



이장연 주임 | 대형 프로젝트는 시운전에 2~3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태국이나 대만처럼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나라에서 시운전을 하다 보면, 땀으로 목욕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작업장은 70도를 넘나들고, 일은 완벽히 해야 하고, 입에 맞는 음식은 없고, 그렇게 2~3년을 지내야 하고... 그런데 고객사 직원들이 품질을 칭찬할 때면 고생이고 뭐고 그냥 온몸이 짜릿해집니다. 이 맛에 일하는 거겠죠!

그 사람을 모르거든 그의 벼를 보라고 하지 않던가. 조직이라고 어디 다를까. 구성원들이 조직의 민낯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팀의 민낯은 부끄럽지가 않다. 이곳 팀원들의 365일 바람은 국내든 국외든 모든 동료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다.



강성복 차장 | 단기간에 상당량의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점이 많아요. 작업이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 피로가 한꺼번에 찾아오거든요. 동료 몸에서 파스 냄새를 맡을 때마다 더 배려하고 챙겨주지 못하게 미안해합니다.



이장연 주임 |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대화죠. 작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팀 전체가 머리를 맞대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저희처럼 숙련된 기술자는 문제 해결능력도 잘 발달해 있으니까요. 또 수고했다, 잘했다, 힘든 점은 없냐 하고 물어봐 주고 또 대답하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도도 다소 낮아집니다.



이상문 기장 | 저는 지금 잘해서 연말에 웃으면서 보자는 말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대만 프로젝트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싶습니다. 연말에 '우리 이만큼 잘했지' 하고 웃을 수 있게요. 납품기일 안에 더 많은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욱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왜냐, 연말에 웃을 수 있게!



김원진 차장 | 그렇게 된다면 SIMPAC산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상당히 커질 텐데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팀원들 스스로가 잘 알듯이 대만 프로젝트에 대한 모두의 각오가 남다르니까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결과만은 더없이 크도록 마음을 모아봅시다.

12명 최정에 이들이 모여 있는 작지만 강한 팀, SIMPAC산기 생산팀은 열심히 증명해왔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달성하게 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성큼 4개월을 넘겨버린 2016년에도 또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 불변의 진리 혹은 우공이산의 정신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운동 증진을 위해 계획 중이라는 골프 타석 제작에도 응원을 보낸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남의 힘은 빌리지 않는다고 하니, 역시 절대 금손이 모인 생산팀답다. 직접 만든 골프 타석이 유명해져서 수출 제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유쾌함이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Together

"멀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멀리 가려면 사막을 지나고 짐승을 피해야 하는데 길동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혼자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하려면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비전을 성취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업의 성공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글 자유기고가 배나영



함께 할수록 더 많이 얻는 힘

혼자 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굴지의 기업이 꿈꾸는 원대한 꿈과 창대한 비전,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갈 동료가 필요하다. 기업의 성공은 사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승진을 원할 때, 참신한 상품을 개발할 때, 회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때, 회사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싶을 때, 답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다른 사람과 하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파트너십과 협동은 기업의 실적을 넘어 기업의 미래와 성패를 좌우한다.

삼성전자 출신의 김병완 미래경영연구소 대표 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영자들인 구인

희,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등의 경영 원칙과 노하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 좋은 경영자들은 사람을 잘 활용하고, 이익에 앞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사람이 기업의 최고 경쟁력임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이다.

경영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도 <경영의 실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자원은 바로 사람"이라고. 기업 경영의 핵심은 바로 이것, 사람이다.

1+1이 2보다 커지는 협력의 법칙

아침 식사로 빵 한 조각과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빵 열 조각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 빵과 사과에 들어있는 각각의 영양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피터 드러커는 조직에서 1+1은 결코 2가 아니며, 그대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1+1은 2보다 훨씬 크다.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 협력은 개인의 능력을 덧셈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막히게 잘 짜인 팀이 협력을 이루면 각 개인의 능력을 배가 시키고도 남는다. 두 사람이 생각을 일치시키고 힘을 모으면 열 사람이 각자 해낸 일의 총량보다도 더 큰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 혼자 1이었던 능력이 팀을 이루면 2가 되고, 3이 되는 것이다.

조직 안에서 제대로 협력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각, 경험, 배움을 얻을 수 있다. 협력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 뛰어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고를 자극한다. 또한 조직에 위기가 닥쳤을 때 공익을 위해 함께 일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또한 폭넓은 기술과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도전기회를 얻는다.

높은 성과를 올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날 때부터 타고 나는 사람은 없다. 조직 내에서 협력하는 노하우를 개개인이 갖고 닦을 필요가 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인과 팀, 조직이 조화를 이뤄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로 일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 조직과 자신을 연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실적과 효율만큼 중요한 인간관계

많은 사람이 일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직장 동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안면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는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다. 때로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업무 능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어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비즈니스 분야 리더들의 이미지 컨설팅을 담당하는 이종선 대표는 외국계 금융사 대표 후보에 올랐다가 번번이 탈락하던 한 임원의 일화를 들려준다. 그 임원은 자신의 실적과 능력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탈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미국 본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본사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임원의 실적과 능력은 탁월하지만



리더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며 조목조목 이유를 짚어주었다. 유머가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비아저씨나 청소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그가 매번 탈락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인간관계보다는 실적과 효율을 중시할 것 같은 외국계 금융사의 사례라서 더욱 놀랍다. 어떤 기업에서든 인정을 받으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헤드헌터 회사에서는 스카우트를 할 때 해당 인물의 정보를 얻기 위해 소위 '평판콜'이라는 것을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의 뒤편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직설적이지 못한 편이라서 '좋다, 나쁘다'를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자.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일까?

개인의 능력과 성과는 때때로 평소의 협조적인 인간관계와 다수의 평판에 좌우되기도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경영자는 누구라도 자신이 왕이라는 사고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느 사원을 대하더라도 이 사람은 훌륭한 존재이며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되새겨 볼 말이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 협력과 인간관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들 -

BOOKS FOR YOU

<WE 프로젝트> by 주디스 E. 글레이저, 흐름출판



주디스 글레이저는 20년 동안 500개 기업에서 기업문화와 노사관계, 리더십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 온 자신의 경험으로 이 책을 썼다. 저자가 개발한 'WE 프로젝트'는 직원과 리더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혁신적인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조직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기존의 성과중심의 이론을 뒤집고, 조직이 함께 '하나'가 될 때라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우리중심'의 이론을 제시한다. 즉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안달하던 개인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장과 직원이 모두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 모든 직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9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하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개인주의와 안녕을 고하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주며, 모든 직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피터 드러커의 경영 블로그> by 동시아, 미다스북스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피터 드러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현대의 경영학 이론의 대부분을 정립한 경영의 구루라고 불린다. 피터 드러커의 에센셜 특별판이라는 이 책에서는 피터 드러커가 평생 저술한 30여 권의 저작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가장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피터 드러커의 방대한 사상 체계를 간략하게 들여다보는 이 책은 총 175개의 작은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한 친구의 블로그를 들여다보듯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고, 내용이 간결하여 한 눈에 들어온다. 목차를 보고 궁금한 질문을 찾아보기에도 좋고, 아무 쪽이나 펴서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기 경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기업과 조직,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실천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by 이종선, 평단



당신이 누군가와 점심 약속을 했다고 치자.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지금 가는 길인데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였다. 당신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천천히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한 답변이다. 하지만 세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라고. 국내 최고의 이미지 설계 전문가이자,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고의 강사인 저자는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인간관계에 대한 에센스를 풀어놓는다. 능력이나 실적, 효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에게 저자는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처럼 대하고 매 순간을 가장 결정적인 시간처럼 보내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분명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세상은 당신의 편이 된다.

SIMPAC의 화창한 봄은 우리가 만든다!

'16년 SIMPAC 신규입사자 역량강화과정

지난 2월 25일 - 27일, 강원도에서 SIMPAC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OJT 교육이 2박 3일간 이루어졌다. SIMPAC의 미래를 이끌어갈 23명의 신입사원이 참여한 이번 OJT는 기본 역량 강화와 더불어 SIMPAC 계열사 간 이해를 통한 소속감과 애사심 고취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팀 PT와 팀빌딩 프로그램, 야간산행 등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로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OJT를 통해 초심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만들어갈 SIMPAC의 신입사원들. 당찬 포부를 가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옛된 얼굴에서 나오는 순수한 모습으로 SIMPAC을 '첫 걸음'이라 소개한 윤수정 사원.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시작하게 된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푼 모습이었다. 수금관리와 해외사무소 정산 등 회계 업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부담감 보다는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신무장이 되어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SIMPAC 사옥을 보고 어떤 회사일까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접한 회사지만 곧 수정씨에게 SIMPAC에 취업할 기회가 생겼고 이는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본인의 업무에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월 회계마감이 끝난 후 ERP로 제가 직접 작성한 입출금 결의서들이 종결되는 것, 그리고 결재 후 업체에 송금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노련함과 업무스킬, 외국어능력 등을 배우고 싶다는 그녀. 꿈과 열정 가득한 20살 나이답게 배우고 싶은 욕심 또한 가득하다.

저에게 SIMPAC은 '첫 걸음'입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해준 설렘과 기대

"안녕하십니까! (주)SIMPAC 국내영업팀 신입사원 김정빈입니다!" 시원시원한 외모에 어울리게 당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밝은 성격을 가져 영업팀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

"기계공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PRESS 1위 업체 SIMPAC의 채용공고를 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당장 지원했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지만 첫 사회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눈매가 날카로운 첫인상 때문에 버릇이 없다는 오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웃으며 큰소리로 인사를 하게 되었죠." 아직은 직접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SIMPAC을 방문한 고객들이 만족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PRESS 기계의 설계부터, 생산, 설치, 시운전, 수출업무까지 폭넓은 지식으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선배들의 멀티플레이어 역량을 배우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회사의 명함 같이 회사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패기 넘치는 그의 포부는 '2016년은 바쁜 SIMPAC'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예감할 수 있었다.

저에게 SIMPAC은 '스타트블럭'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도움닫기이자 내 인생에 가속을 실어 줄 원동력

(주)SIMPAC 국내영업팀 김정빈 사원

*스타트블럭: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출발 시 작용반작용을 통해 가속을 내기 위한 발판



(주)SIMPAC 해외영업팀 윤수정 사원

듣직한 덩치와는 사뭇 다른 세심함으로 SIMPAC 인터스트리 품질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선호 사원. 그의 반전매력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록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남동공장의 소재 생산에 필요한 품질관련 업무와 생산되는 제품의 시험 등으로 품질 피드백을 담당하는 그에게 꼼꼼함과 진지함은 필수요소다. SIMPAC에 들어오기 까지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평소 뿌리산업으로 기술력이 있는 주조금속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금속에서 산업기계까지 한 그룹사내에서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곳이 SIMPAC이라 생각했습니다.” 금속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한 몸이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이론과 다른 현장에 당황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금속의 종류가 훨씬 많았고 용어 또한 생소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선호 사원이 난관을 헤쳐나간 방법은 바로 초심. 알고 있는 부분도 다시 반복하여 실수 없는 업무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일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적인 선배들의 모습을 닮고 싶다는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 “남들에게 먼저 인정받기보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 고객이 원하는 품질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에게 SIMPAC은 '자유'!

한가지 분야에서만 멈추지 않고 산업기계와 주물, 합금철, 프레스산업 등에 필요한 각종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있는 GROUP

SIMPAC인터스트리 품질지원팀 최선호 사원



SIMPAC인터스트리에 운이 좋아 입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계팀에 자리하고 있는 이진재 사원. “대학 시절 1년에 2번 정도 일산 KINTEX의 기계 박람회에 방문했습니다. SIMPAC을 안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요즘 한국 기업의 최대 화두는 생존, 그 중심에서 있는 팀이 R&D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R&D팀에 1년 넘게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현업에 대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부분의 경험을 좀 더 쌓고 싶어요.”

업무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설계하여 납품된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R&D팀의 선배님들을 보면 배울 점이 많다고 한다. 설계 외적인 부분까지 챙기는 꼼꼼한 성격과 공과 사를 구분하는 엄격함은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분.

선배들과 더불어 이번 신입사원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만난 동기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낀다.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김)정민씨, (양)세아씨, (이)의진씨, (박)태양씨, 조장 (최)준호씨까지 좋은 팀원을 만나 좋았습니다.” R&D팀과 타 부서, 나아가 인터스트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저에게 SIMPAC은 'START'입니다.

SIMPAC은 첫 직장이고 제가 사회에서 겪는 모든 일의 첫 시작

SIMPAC인터스트리 설계팀 이진재 사원

작은 체구와 하얀 피부를 가진 이수연 사원. 걸으려는 왜소해 보이지만 열정 가득한 눈빛과 의욕 넘치는 태도는 다른 동기들마저 허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OJT 프로그램 중 10명의 구성원이 6개의 미션을 단기간에 수행하는 '타임헌터'를 진행하면서 그녀의 승부욕은 더욱 드러났다. 첫 번째 도전에서는 1개의 미션을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도전으로 미션완수는 물론 시간도 2배 이상 단축했다. 그녀의 남다른 승부욕은 업무에서도 연장된다.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에서 자재 마감 업무와 발주업무를 겸하고 있는 이수연 사원은 업무의 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자재마감 같은 경우는 프레스 원가 구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업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던 건 엄하게 가르친 사수 덕분이라고. “사수님이 무서우셔서 작은 실수 하나도 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조금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확실히 배워둬서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배들의 능숙함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파 웬만하면 선배들의 도움을 얻기보다 직접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가 되는 SIMPAC인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포부 속에서 2016년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기대해본다.

나에게 SIMPAC은 '청춘'이다.

일반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SIMPAC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SIMPAC은 인생의 젊은 나이, 혹은 그 시절 자체로의 '청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이수연 사원



뜨거운 열정! 넘치는 패기! 신규입사자 역량강화과정 2일차 현장 스케치

체험식 강의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는 최적의 루트발굴)



가장 빠른 길로 가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타임헌터 (빠른 시간 내에 팀워크를 발휘하여 목표 달성)



함께하면 좋은 사람,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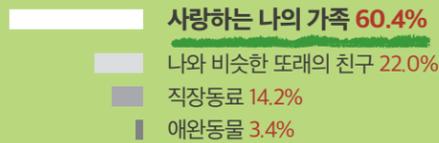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친구에 대해 이와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 친구. SIMPAC인 여러분들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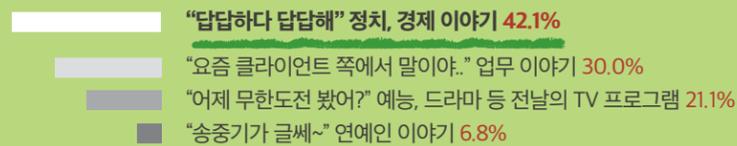
2016 SIMPAC STORY 봄호 'SIMPAC 데이터' 의 주제는 '함께하면 좋은 사람, 친구' 입니다.

• 설문기간 : 4월 19일 ~ 26일 • 대상 : SIMPAC그룹 전 계열사 • 참여인원 : 323명

01 힘든 일부터 기쁜 일까지, 나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는 친구는?



02 친구와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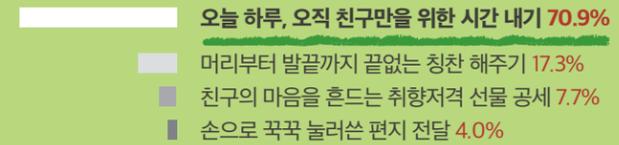


SIMPAC인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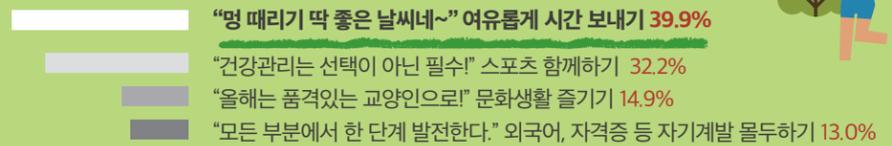
- ♪ 함께 있으면 마냥 즐거운 친구
 - ♪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친구
- ♪ 오랜만에 보더라도 마치 어제 본 것 같은 친구
 - ♪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편인 친구
- ♪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 ♪ 늘 내 곁에 있어주는 공기같은 친구
 - ♪ 편하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03 친구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04 의미 있는 여가시간 만들기! 친구와 함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봄나들이 근심 걱정나킬 자유여행

햇살 아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봄입니다. 특히 올해 봄은 예년보다 많이 따뜻해서 만개한 봄꽃을 이룬 시기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봄꽃이, 마음 속에는 이곳 저곳 돌아다니고 싶은 자유로움이 피어나는 계절, 봄. 몸도 마음도 들뜨는 봄날의 일상에서 자유로운 일탈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사진/글 : SIMPAC HDS ENG사업부문 구미영 사원

여행을 좋아해서 종종 해외로 국내로 떠나곤 하는데 이번 여행은 작년부터 준비한 여행이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과 태교여행으로 유명한 괌은 쇼핑과 휴양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행지. 하지만 휴양지여서 물기는 상당히 비쌉니다.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이고 시차는 괌이 2시간 정도 빠릅니다. 3월 초에 떠났던 괌의 날씨는 습한 바다 바람과 30~33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걸어 다니기는 좋지만 낮에는 숨막히는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1st DAY

괌의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차모르 야시장

첫날 도착하자마자 호텔 체크인과 함께 렌트카를 받고 계획했던 일정 시작! 괌의 호텔은 휴양지다보니 종류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렌트카도 쇼핑이 주목적이라면 필요 없지만 여유롭게 투어를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일정의 시작은 여행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야시장. 괌 역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차모르 야시장이 있어서 짐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모르 야시장은 괌에서 제일 크게 열리는 시장으로 현지 로컬푸드와 관광객을 설레게 하는 기념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야시장이지 5시쯤 시작해서 8시면 시장이 끝납니다. 괌은 24마트를 제외하고는 해가 떨어지는 7시부터 길어야 9시만 되면 문을 닫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야시장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차모르식 바베큐는 너무 맛있어서 포장도 해왔습니다. '이 바베큐를 위해서라면 괌에 한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바베큐. 추천! 두 번 추천! 드립니다. 현지 마을분들의 신나는 춤을 구경 한 후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아쉬운 첫날밤을 야시장에서 포장해 온 꼬치, 피자, 간단한 맥주 한 잔으로 달래며 첫 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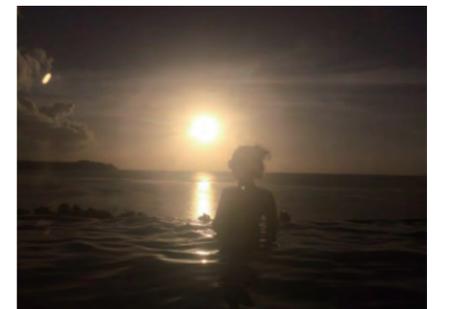


2nd DAY

괌의 바다에 흠뻑 빠지다.
리티디안 비치 & 이나라한 자연폴장

둘째 날은 북부와 남부투어 일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북부의 리티디안 비치에서 스노쿨링을 즐겼습니다. (비치로 가는 길은 도로들이 폭격 맞은듯이 폭폭 꺼져있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안전운전입니다!) 리티디안 비치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한참을 낚 놓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아주 맑아 산호초까지 다 보이고 얕은 곳에서도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곳. 역시나 훌륭했습니다.

오후에는 북부투어를 마치고 남부에 있는 이나라한 자연폴장으로 향했습니다. 북부에서 남부로 가는 길은 마린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또한 예술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나라한 자연폴장은 오래 전 화산활동과 바닷물의 침식으로 인해 움푹 들어간 곳에 파도가 유입되고 자연스럽게 물이 고여 만들어진 천연 해수 수영장입니다. 물놀이하기 적당한 깊이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스노쿨링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연폴장 옆 작은 다리를 건너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 자연폴장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저녁식사는 호텔에 돌아와 에메랄드빛 바다와 석양을 바라본 채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녁 노을의 낭만을 가득 품은 채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3rd DAY

낭만과 여유로움의 순간,
사랑의 언덕 & 더 비치바

마지막 날은 여유로운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괌의 대표 관광지인 사랑의 언덕과 쇼핑센터가 준비해있는 시내 투어일정. 쇼핑센터는 한 곳에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여행일정 셋째 날은 렌트가 없이 산책하듯 걸어 다니며 구경을 했습니다. 사랑의 언덕은 관광지답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안 되는 연인들이 서로의 머리를 묶고 떨어졌다는 사랑의 언덕의 절벽을 구경한 후 이 여행의 마지막 밤을 낭만 가득히 마무리할 괌의 자랑이자 맛집, 멋집! 석양이 예쁘다는 더 비치바로 향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비치바는 비치 옆에 있는 BAR입니다. 낮보다는 저녁 무렵에 석양을 바라보며 칵테일 한잔과 함께 원주민디너쇼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더 비치바에서 보는 석양은 그야말로 예술! 사진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짧지만 알찬 여행으로 마무리한 이번 괌 여행. 여행기를 쓰는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던 자유여행이었습니다.



○ 관에 간다면 여기로 둘러보세요!

1. 세계 최대 길이의 수조터널이 있는 곳, 언더워터월드(Under Water World)

날씨가 좋지 않아 괌의 푸른 바다를 구경할 수 없다면 실제 수족관의 '언더워터월드'가 우울한 기분을 달래줄 것입니다. 총 100m 길이의 터널형 수족관으로 되어 있는 이 곳은 1천여 종의 해양생물을 눈 앞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이지만 마치 바닷속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생생한 구경이 가능한 이 곳은 특히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언더워터월드' 주변에는 쇼핑몰도 밀집되어 있다고 하니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좋은 여행코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입장료 : 어른 23달러, 어린이 12달러, 3세 이하 무료입장
- 운영시간 : AM 10:00 ~ PM 10:00

2. 괌 최남단에 위치한 신비의 섬, 코코스 아일랜드 (Cocos Island)

괌에서도 남다른 해변의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 바로 코코스 아일랜드이다. 메리조 부두에서 15분 가량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곳은 푸른 바닷물에 한 번, 희고 고운 백사장에 두 번 감탄하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이 곳의 백사장을 뒤덮은 별 모양의 스타 샌드(Star Sand)는 세상에서 3곳에서만 발견되는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비쁜 여행 일정보다는 느긋한 힐링의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코코스 아일랜드를 추천 드립니다.

3. 피시아이 마린 파크 (Fish Eye Marine Park)

코코스 아일랜드에서 괌의 뛰어난 해변 경치를 구경했다면 피시아이 마린 파크에서는 괌의 맑은 바닷속을 한 눈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수중전망대까지는 약 300m에 달하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바다 위를 산책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중전망대에서는 계단을 통해 수심 11m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바다를 걷는 잠수부들과 아들에게 모이는 열대어들의 장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심 10m의 바닷속을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씨 워커 투어' 또한 이곳에서 체험 가능하며 비용은 어른 85달러, 어린이 75달러 입니다.

- 입장료 : 어른 10달러, 어린이 5달러, 5세 이하 무료
- 운영시간 : AM 08:00 ~ PM 05:00



열혈 스포츠 마니아 3인 3색

“운동이 제일 쉬웠어요!”



(주)SIMPAC
설계팀
김상엽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품질지원팀
김영민 대리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전준호 사원

흔히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어떻게든 운동을 하고야 마는 SIMPAC의 열혈 스포츠 마니아들. 주요 종목 또한 다양하다. 철인3종, 배드민턴, 야구, 축구, 디스크골프까지! 이들의 운동에 대한 열정은 ‘마니아’라는 말로는 2%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로 뜨겁다.

Q. SIMPAC의 스포츠 마니아들이 모였습니다. 본인이 즐겨 하는 운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상엽 > 철인3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함께하는 운동인데요. 철인3종은 거리에 따라 올림픽코스, 하프아이언맨코스, 아이언맨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는 올림픽코스까지 경험한 상태입니다. 2012년에 입문했고 앞으로 장거리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입니다.

김영민 > 현재는 배드민턴에 빠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직장인 야구동호회, 지역에 조기 축구회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평일 새벽에는 출근 전에 거의 매일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회사 내 6명이 함께 운동을 하고 내년엔 복식대회에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전준호 > 조금은 생소한 스포츠인데요. 디스크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원반으로 하는 골프 경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축구, 풋살, 마라톤을 했습니다. 사실 디스크골프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의 동적인 운동과 다르게 정적인 운동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경치 좋은 데서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Q. 직장생활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시간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김영민 > 제일 힘든 건 가족의 이해를 얻는 것 같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어 주길 바라는데 저는 운동하러 나가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 부분을 빼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전준호 >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현재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회사근무 시간 외에 그 정도 시간을 내는 게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주말에는 좀 더 운동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사실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서 시간에 큰 제약이 없는 편인 것도 같아요.

김상엽 >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 앞으로 오래도록 운동을 즐기려고 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대회에 집중하며 강하게 운동하고 다른 시기에는 좀 쉬면서 하는 편이에요. 주말에는 물론 운동을 좀 더 강하게 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오후엔 시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을 소화하기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시간관리는 정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Q.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김상엽 > 원래는 운동과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시절에 우연히 철인 3종 경기를 직접 보게 됐고, 그때 선수들의 강인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철인3종에 더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때마침 이는 형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20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김영민 > 저는 청소년기부터 계속 운동을 즐겨 해왔습니다. 구기종목은 거의 다 좋아해서 틈나는 데로 친구들과 모여서 운동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 생활이 직장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요.

전준호 > 저도 청소년기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체육학과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했었으니까요. 저도 구기종목을 좋아하는데 마라톤도 재미있고, 지금 배우는 수영이나 디스크골프도 재미있습니다. 운동이 그냥 즐겁고 좋아요.

Q. 운동 때문에 겪었던 좋은 경험이나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김영민 > 새벽에 항상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일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와이프한테 점수를 좀 딴 편이죠. 또 10년 동안 지각이 한번도 없다는 거! 자랑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일상이 규칙적이고 성실해지는 것 같아요.

전준호 > 고등학생 때 제가 축구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때 조기축구회에 저를 합류시켜주신 선배님이 지금의 디스크골프도 추천해 주셨어요. 오래되고 소중한 인연이죠. 또 디스크골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일본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그래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디스크골프를 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외국어 공부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상엽 > 철인3종이라고 하면 엄청 힘든 운동이라고들 생각하시는 데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해보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수록 매력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점은 가끔 저도 감기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운동 많이 하고 근육 많다고 감기에 안 걸리는 건 아닌데 말이죠.



Q. 스포츠파광인 자신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전준호 > 응원해주는 분이 많지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알겠다" "운동 그만하고 연애를 해라" 등등..

김상엽 > "너는 뇌도 근육이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 몸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죽기살기로 운동하는 편은 아닌데도 말이죠. 부모님은 제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도 제가 운동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고요. 운동할 때 외에는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김영민 > "적당히 좀 해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고 출근하니까 그렇게들 말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집에서도 그렇고요.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는 건 좀 더 노력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늘 고민입니다.

Q. 나에게 운동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상엽 > 운동은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을 하면 몸은 물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운동과 같은 취미생활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일상에 활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김영민 > 저한테 운동은 "가족"입니다. 힘들거나 짜증날 때도 평생 같이 하는 존재, 그런 게 운동이니까요.

전준호 > 운동은 함께하면 좋은 "친구" 같아요. 좋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하고 익숙해서 좋고 그렇잖아요. 운동이 저한테 그런 느낌입니다.

Q.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스포츠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준호 > 지금 수영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이나 그 다음 해 정도에 철인3종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마라톤과 자전거는 이미 하고 있으니 수영 실력만 갖추게 되면 꼭 해볼 생각입니다. 자꾸 새로운 스포츠에 관심이 생기네요.

김상엽 > 제가 철인3종 5년차인데요. 60세가 될 때까지 100회 대회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또 5년 안에 철인3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 코스에 도전할 계획이에요.

김영민 > 일단은 내년에 복식대회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대회에서 실력을 검증받고 싶고 또 좋은 성적도 낸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가를 꼭 배워보고 싶어요. 요가가 건강에 정말 좋은 것 같아서요. 와이프와 함께 배워도 좋고요. 다들 하고 싶은 게 참 많네요.(웃음)

One man보다 강한 One Team

영화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트(Friday Night Lights)>

글 : SIMPAC HDS ENG사업부문 손인성 사원

HOPE COMES ALIVE



FROM THE PRODUCER OF "8 MILE"
FRIDAY NIGHT LIGHTS

UNIVERSAL PICTURES and IMAGINE ENTERTAINMENT present a BRIAN GRAZER production a PETER BERG film BILLY BOB THORNTON "FRIDAY NIGHT LIGHTS"
DENZEL WASHINGTON JAY FERNANDEZ LUCAS BLACK BARRETT HEWLETT and TIM MCGRAW with BRIAN REITZEL BRIGGS LINDSEY WATSON "FRIDAY NIGHT LIGHTS" cast
DIRECTOR OF PHOTOGRAPHY THOMAS SCHLESSELER EXECUTIVE PRODUCERS JAMES WINTHROP JOHN CALVERTON PRODUCED BY LISA WILSON PRODUCED BY DAVID KATZMAN PRODUCED BY PETER BERG
WRITTEN BY PETER BERG DIRECTED BY PETER BERG
CASTING BY JENNIFER WATSON COSTUME DESIGNER JENNIFER WATSON
EDITED BY JENNIFER WATSON EXECUTIVE PRODUCERS JAMES WINTHROP JOHN CALVERTON PRODUCED BY LISA WILSON PRODUCED BY DAVID KATZMAN PRODUCED BY PETER BERG
UNIVERSAL PICTURES
www.fridaynightlights.com
© 2005 Universal Studios. All Rights Reserved. For rating reasons, see www.filmratings.com

* SIMPAC인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인폴더'는 여러분이 직접 영화, 책,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SIMPAC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개인폴더' 코너에 참여한 직원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초 해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스포츠 중계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프로미식축구의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Super Bowl)"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단 몇 초만에 수십 억의 광고 비용이 들어가는 일명 '슈퍼볼 광고'로 친숙합니다. 슈퍼볼의 평균 시청률이 50%에 육박하며 전 세계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아마도 미식축구가 전속력으로 뛰고, 볼을 발로 차고, 공을 잡고 몸으로 부딪치며 상대방의 진로를 막는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쯤 되면 제가 소개할 영화가 대충 어떤 내용일지는 짐작하시겠죠?

제가 SIMPAC인 여러분께 소개할 영화는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트>입니다. 이 영화는 텍사스 주에 위치한 어느 고등학교의 미식축구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팀의 모든 경기 전술은 스타플레이어 한 명을 중심으로 짜여있습니다. 스타플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체격조건이 좋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본인의 기량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팀의 스타플레이어 없이 우승이 힘들다며 감독에게 외압을 넣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압박에 굴하지 않고 꾸준한 선수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기량을 발전시킵니다. 항상 스타플레이어에게만 의존하며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선수들은 감독의 리더십 아래에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한 마음으로 경기에 뛰게 되었고 강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화는 미식축구의 치열한 경기와 꿈을 향한 젊은이들의 도전을 생생하게 담아내었기에 보다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감독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선수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챔피언으로 가는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한 후 자신감이 없어진 쿼터백은 감독과 차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경기를 뛰며 이기는 중이던 지는 중이던 계속 질 것 같은 마음이 느껴져요. 이걸 무슨 악마의 저주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쿼터백의 말에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승자와 패자는 큰 차이가 없어. 그냥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지.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말이야. 사실 난 저주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만든 함정이라고 생각해. 저주라는 건 없어." 패배감에 젖어 트라우마가 생긴 선수에게 덤덤하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감독의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아이에게 주는 시탕 같은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전 경기 종료 후 라커룸에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연설을 한 장면입니다. "나에게 있어 완벽함은 전광판에 나온 점수나 이기는 것이 아닌 자신과 동료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동료의 눈을 보며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과 매 순간을 즐기면 그것이 완벽해지는 것이다." 경기의 결과보다 팀원들과의 관계와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한 감독의 연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팀의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SIMPAC인들도 꾸준히 스스로의 기량을 쌓고, 자신을 믿으며, 회사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함께 일하는 동안 매 순간을 즐기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아 일을 한다면 영화에서 나온 팀처럼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은 스스로에 대해 한탄하며 일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자신이 팀에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여 의욕을 상실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이번 주말 치맥과 함께 이 영화를 시청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추천합니다.

PS.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트>를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한 미식축구 상식!

1. 미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고등학교 팀이, 토요일 저녁에는 대학교 팀이, 일요일 저녁에는 프로 팀이 미식축구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2. 미식축구는 팀 당 11명으로 구성되어 4번의 공격기회를 가지고 상대방의 골 라인 안으로 공을 운반하여 득점을 하는 스포츠입니다.
3. 미국의 미식축구 시즌은 9월 ~ 11월 말까지며 지역별 우승팀은 1월에 거행되는 선수권 시합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합이 치러지는 경기장이 사발(bowl)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볼 게임이라고 하며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펼쳐지는 챔피언 결정전을 '슈퍼볼'이라 부릅니다.

편지 왔습니다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사우가 전하는 편지



SIMPAC메탈로이 기획재무팀 김소형 주임에게.

안녕하세요.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입니다. 저는 이번 봄호 사보의 '편지 왔습니다' 코너를 통해 그 동안 고마움을 표하지 못했던 기획재무팀 김소형 주임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김소형 주임과 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 등의 업무를 공유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의 재무와 관련된 업무라 상대적으로 더욱 신경써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끔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 업무적으로 많은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데도 김소형 주임은 항상 미소 띤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응대해줍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즉각 업무를 처리해주는 적극적인 모습에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업무가 밀리고,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약간은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김소형 주임의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자중하고,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노력한답니다.

예전처럼 기획재무팀이 포항에서 함께 근무 할 때는 맛난 간식을 틈틈이 대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획재무팀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주 만날 수 없네요. 아쉬운 상황을 뒤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평소 다양한 차(茶)를 즐기는 김소형 주임에게 향긋한 커피와 함께 머그잔을 선물로 보냅니다. 바쁜 업무 중에 향긋한 커피한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매일 아침을 따뜻한 모닝커피와 함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편지 왔습니다

(주)SIMPAC 김선일 사우가 전하는 편지



경영지원팀 인사총무PART 지영훈 선배님께.

(주)SIMPAC 경영지원팀 인사총무part의 일원으로 입사하여 지영훈 선배와 호흡을 맞춘 지 바야흐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4개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SIMPAC이라는 회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생애 첫 직장인 만큼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서툰 업무 역량 탓에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업무내용도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것들도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아닌 제 사수 지영훈 선배였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 갈팡질팡 할 때에는 자신의 산 경험을 들려주며 고민을 덜어주기도 하였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노하우도 아낌없이 전수해주었습니다. 혹 자신의 선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민들이 있으면 주저 없이 과장님이나 팀장님과의 면담을 주선해주는 메신저의 역할도 다하는 등 저의 조기적응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주며, 단순히 직장 선후배가 아닌 좋은 형, 동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당근'만 주었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바로잡아주거나 지적도 서슴지 않았지요. 물론 당시에는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일환으로 후배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 동안 잘해주셨던 것들을 되짚어보니 제가 받은 것에 비해 선배님께 도움 드린 점은 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선배님의 지도와 조언을 자양분으로 삼아 회사에 큰 보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함은 물론, 저도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 전하는 멋진 선배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덕분에 출근이 즐겁고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곤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편달 부탁 드리며, 팀 내에서 좋은 호흡 이뤄보아요. 고맙습니다.

경영지원팀 인사총무PART 김선일 사원



산뜻한 향기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디퓨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 주제는 “함께하면 즐거운 ○○○○○○”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면 즐거운 봄맞이 피크닉!

from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두현 사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되어 여자친구와 꽃구경을 갔습니다.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야외로 나와보니 벌써 꽃이 다 피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때쯤, 여자친구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몰래 준비했다는 도시락! 보이는 것 만큼 맛도 훌륭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요리도 잘하네요♥



함께하면 즐거운 딸과의 놀이동산 데이트

from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정우성

사랑하는 딸 지우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운 놀이동산, 바깥 놀이를 좋아하는 딸아이를 위해 올해는 연간회원권까지 구매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바이킹에 올라타면 기분은 어느새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한바탕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딸 아이와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즐거운 놀이동산 데이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봄꽃 나들이

from SIMPAC산기 경영지원팀 김현수 과장

주말부부라 가족들과 매일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아이들의 투정에 못이겨 가족들과 간만에 봄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함평에 위치한 자연생태공원에서 활짝 핀 꽃들을 보며 봄 기운을 한껏 즐겼습니다. 화사하게 핀 봄꽃을 보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아이들 때문에 놀러갔다가 제가 힐링이 된 봄나들이. 얼마 남지 않은 봄 분위기를 가족들과 함께 느껴보세요~



함께하면 즐거운 비누방울 놀이

from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화창한 오후 딸아이와 집안 연못가에서 즐기는 비누방울 놀이, 아이는 비누방울을 만들고 아빠는 터뜨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주위에 또래 아이들이 모여 비누방울을 터뜨리고 있다. '이제 아빠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ㅎㅎ

*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에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호 주제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_____” 입니다.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2016년 벚꽃이 만개한 4월, 따뜻한 소식이 SIMPAC에도 들려옵니다. 인생의 반쪽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SIMPAC인들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주세요.



2016년 4월 9일
(주)SIMPAC 외주관리팀
김영복 대리



2016년 4월 9일
SIMPAC메탈 생산팀
전기로 A조
이성진 사원

2016년 4월 16일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심정래 대리